

과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 A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상경이* · 백순근**

< 국문 요약 >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 A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과외 실태에 대한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의 성별, 부모의 학력 및 경제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학생들의 과외 경험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부모의 학력 및 경제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과외 수강 비율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과외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월평균 과외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 수준 등에 따라 과외 형태 및 과외 수강 과목 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한편 학생의 성별에 따른 과외 수강 비율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과외를 수강하는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과목의 과외를 수강하고 있었다($p < 0.05$).

주요어 : 과외, 과외 수강 비율, 과외비, 과외 형태, 인구통계학적 변인

I. 서론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사회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외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 과외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초·중등 학생들의 과외 수강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3년에 실시된 조사(최상근 외, 2003)에서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초등학생의 83%, 중학생의 75%, 고등학생(일반계)의 57%가 과외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과외 수강 비율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과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과외가 학교 성적을 올리는 데 효과적인가 라는 물음에 약 70%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고, '과외를 받은 후 그 과목의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답한 학생들도 약 60%에 이르고 있다(김양분·김미숙, 2002). 또한 학생들은 과외 수업이 학교 수업에 비해 '교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강조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고려해 가르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종태 외, 2002).

한편 과외가 학업성취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관적 인식과는 별도로, 과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의 사전성취도나 가정환경 등 배경변인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과외가 여전히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른 배경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해도 과외가 여전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들과는 별도로 모든 연구들에서 과외 수강 여부 그 자체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한대동 외, 2001; 이해명, 2001; 이종태 외, 2002; 오영수·윤정식, 2003; 상경아·백순근, 2005). 또한 과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태도 및 자기조절학습에서도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상경아·백순근, 2005).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 과외를 하고 있거나 경험해 보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도 과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과외는 학생들의 학습경험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급된다는 점에서 공교육(혹은 학교교육)과 차이가 있다. 즉 과외는 사적인 교육 서비스로서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개연성이 크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도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직결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생 진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에 의해 과외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 계층간 불평등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과외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과외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과외 수강 과목이나 과외 형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

에서 과외 수강 여부에 따라 과외 비율이나 과외 효과 등을 논했던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특정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과외 수강 실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A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의 겨울방학부터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를 거치면서 과외 수강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입학 직전인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은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과외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과외 수강 경험을 조사·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의 과외 수강 실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과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과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과외 비율이 높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보다 서울이나 신도시 등 도시지역의 과외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미나, 1991; 윤정일 외, 1997; 최상근 외,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과외 수강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부모의 학력, 경제 수준, 학생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과외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소재 A 고등학교의 2004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 고등학교는 강남권에 위치하면서도 아파트나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부터 학교 인근의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는 학생들이 섞여 있는 학교이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전학(전입 혹은 전출)한 학생들을 제외한 382명의 학생들 중 3차에 걸쳐 이뤄진 과외 경험 조사 및 기타 설문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은 총 350명이었다. 학생들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172명, 여학생 178명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이들 학생들의 과외 수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2003년 12월) 이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반(2004년 10월)까지 학생들의 과외 경험 및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에 대해 조사하였다(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6월, 그리고 10월에 걸쳐 총 3차례의 설문조사가 실시됨). 이하에서는 A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집단 특성을 부모의 학력, 소득 수준, 학생의 과외 수강 비율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부모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15.1%, 4년제 대학 졸업이 39.1%, 전문대 졸업이 4.9%, 고졸 이하가 28.0%이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7.1%, 4년제 대학 33.4%, 전문대 5.4%, 고졸 이하가 40.9%였다(무응답자가 전체의 약13% 정도 있었음).

<표 1> 학부모들의 학력 수준별 구성비

	대학원 이상	4년제 대학	전문대	고졸 이하	무응답	계
아버지(%)	53(15.1)	137(39.1)	17(4.9)	98(28.0)	45(12.9)	350(100)
어머니(%)	25(7.1)	117(33.4)	19(5.4)	143(40.9)	46(13.1)	350(100)

한편,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학생들 중 경제 수준이 '상'에 속하는 비율이 31.1%, '중'에 속하는 비율이 48.6%, '하'에 속하는 비율이 16.6%였으며, 무응답자는 전체의 3.7%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의 경제수준 변인은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소 주관적이고 부정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고등학생으로서 자신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해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한 연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는 대략적인 지수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표 2> 가정의 경제 수준

경제 수준	상	중	하	무응답	계
사례수(%)	109(31.1)	170(48.6)	58(16.6)	13(3.7)	350(100)

학생들의 과외 비율 즉, 적어도 한 과목 이상 과외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70% 내외였다. 이

것은 최상근 등(2003)의 연구에서 조사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과외 수강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서울 강남 지역의 과외 수강 비율 92.1%보다는 낮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 기타 지역과 수도권의 과외 수강 비율인 60~62%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한편 학생들의 과외 수강 비율은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과외 수강 비율이 다소 높아지며, 특히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에는 과외 수강 비율이 76.3%로 고등학교 입학 이후의 과외비율인 67~70%보다 더 높았다.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겨울방학 기간에 더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수강 하게 되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의 과외 수강이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외 비율의 조사가 어떤 한 시점에서 횡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외 수강 비율을 교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학이 평균 68.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영어 61.0%, 국어 47.1%, 과학 41.6% 순이며, 사회는 7.0%로 다른 교과에 비해 과외 수강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사회 교과의 경우는 학년 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과외 수강 비율이 줄어들어서 2학기에는 과외 수강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졌으며, 과학과 수학 교과의 과외 수강 비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표 3> 교과별 과외 수강 비율의 변화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평균
과외비율(%)		76.3	68.3	70.3	67.4	70.6
교 과 별	국어	48.3	45.4	48.6	46.0	47.1
	영어	69.1	56.9	60.6	57.4	61.0
과 외 비 율	수학	73.7	66.6	68.6	63.1	68.0
	과학	47.4	40.3	41.7	36.9	41.6
	사회	10.0	7.6	5.4	4.9	7.0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과외 수강 정도

이 절에서는 학생들의 과외 경험(과외 수강 비율, 과외 형태, 과외비 등)이 부모의 학

력, 경제 수준, 학생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외 수강 비율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과외 비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생 개인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지위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과외를 더 많이 받으며, 학생 개인 수준의 변인으로는 학생의 성적이 높을수록 과외를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상근 외, 2003).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인 특성 변인 및 가정환경 변인이 과외 수강 여부와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 경제 수준, 학생의 성별에 따른 과외 비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의 학력에 따른 과외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과외 비율이 81.1%, 4년제 대졸인 경우 75.2%, 전문대 이하일 때 62.6%로 학력이 높을수록 과외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일 때와 전문대졸 이하일 때 과외 비율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일 때 과외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 76.0%, 전문대 이하일 때 64.8%의 과외 비율을 보였다.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일 때와 전문대졸 이하일 때 과외 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부모의 학력에 따른 과외 비율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과외	비과외	과외	비과외
대학원 이상	81.1	18.9	76.0	24.0
4년제 대학	75.2	24.8	81.2	18.8
전문대 이하	62.6	37.4	64.8	35.2
평 균	71.5	28.5	72.0	28.0
χ^2	7.78*		9.26**	

* $p < 0.05$; ** $p < 0.01$

한편, 가정의 경제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이에 따라 과외 수강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과외를 적어도 1과목 이상 수강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경제 수준이 '상'인 집단에서 86.2%, '중'인 집단에서 66.5%, '하'인 집단에서 56.9%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과외 수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가정의 경제 수준별 과외 비율

	상	중	하	χ^2
과외	86.2	66.5	56.9	19.67**
비과외	13.8	33.5	43.1	

** p<0.01

성별에 따른 과외 비율은 남학생들이 68.0%, 여학생들이 72.5%로 여학생들의 과외 비율이 4.5%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각 교과별로도 국어와 과학 교과에서는 남학생들의 과외 비율이 각각 5.1%와 6.0%가 높은 반면 수학 교과에서는 여학생들의 과외 비율이 4.5% 높은 것 등 교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6> 성별에 따른 과외 여부 및 교과별 과외 비율

	과외 비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남	68.0	51.2	61.0	66.3	5.2	44.8
여	72.5	46.1	60.1	70.8	5.6	38.8
χ^2	.83	.91	.03	.83	.03	1.30

2) 과외 수강 과목 수

1인당 과외 수강 과목 수는 주당 과외 수강일 및 과외 수강 시간과 밀접히 관련된다. 참고로 교과별 주당 과외 시간의 평균은 수학 4.2시간, 영어 3.8시간, 국어와 과학 3.2시간, 사회는 2.9시간으로 교과별로 약 3~4시간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김양분·박미숙, 2002). 이하에서는 부모의 학력, 경제 수준, 학생의 성별에 따라 과외 수강 과목수에 차

이가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과외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 수준에 따른 과외 수강 과목 수의 차이는 없었으며, 평균적으로 3.2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의 학력에 따른 과외 수강 과목 수

	대학원 이상	4년제 대학	전문대 이하	평균	F
아버지	3.35	3.17	3.19	3.22	0.38
어머니	3.26	3.12	3.29	3.21	0.59

<표 8> 경제 수준에 따른 과외 수강 과목 수

경제 수준	상	중	하	평균	F
수강 과목 수	3.24	3.27	2.94	3.21	1.13

한편 성별에 따라 과외 수강 과목 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름방학 이후로는 여학생들의 과외 수강 과목 수가 남학생들보다 일관되게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은 과외 수강 과목 수의 표준편차가 여학생들에 비해 더 작으며, 이것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과외 수강 과목 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 과외를 수강하는 과목 수의 차이도 더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성별에 따른 평균 수강 과목 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남	3.32 (1.19)	3.27 (1.08)	3.36 (1.00)	3.27 (1.09)
여	3.21 (1.22)	3.07 (1.22)	3.06 (1.22)	2.97 (1.21)
t	-.76	-1.31	-2.09*	-2.01*

* p<0.05

3) 과외 형태

교과별 과외 형태를 살펴보면, 교과별로 학원수강 비율이 약 70~90% 정도로 모든 교과에서 학원수강이 가장 지배적인 과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수학과 영어 교과의 경우는 다른 교과에 비해 개인과외나 그룹과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학은 개인과외의 비율이 18.6%, 그룹과외 비율이 7.4%이었고, 영어의 경우도 개인과외 비율이 10.7%, 그룹과외 비율이 9.1%로 다른 교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동일 교과에 대해 두 가지 형태 이상의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수학과 영어 교과에서 각각 2.7%, 2.5% 였다.

<표 10> 각 교과의 과외 형태별 비율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기타	두가지 병행
국어	92.3	2.4	2.4	3.0	0
영어	76.5	10.7	9.1	1.2	2.5
수학	69.7	18.6	7.4	1.6	2.7
과학	89.8	3.0	3.6	3.6	0
사회	82.8	2.9	0	14.3	0

영어, 수학을 제외한 다른 교과들에서의 과외 형태는 학원수강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참고로 사회 교과는 ‘기타’ 과외 형태가 1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 기타에 해당하는 과외 형태는 주로 인터넷 과외 등이었으나, 사회 교과는 다른 교과들과는 달리 과외를 수강하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아서 과외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원과외 이외의 과외형태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집단별 과외 형태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생들이 학원과외와 개인/그룹과외 중 어떤 형태의 과외를 수강하는가에 있어서 가정환경 변인이나 기타 개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영어와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 영어와 수학 교과의 과외 형태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부모의 학력과 학생의 과외 형태 간에는 긴밀한 관련은 없었으며, 다만 수학 교과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일 때 개인/그룹 과외를 수강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1> 아버지의 학력별 과외 형태 (괄호 안은 백분율임)

학력	영어			수학		
	학원	개인/그룹	계	학원	개인/그룹	계
대학원 이상	22 (71.0)	9 (29.0)	31 (100)	32 (78.0)	9 (22.0)	41 (100)
4년제 대학	44 (53.7)	38 (46.3)	82 (100)	61 (70.1)	26 (29.9)	87 (100)
전문대 이하	37 (59.7)	25 (40.3)	62 (100)	51 (81.0)	12 (19.0)	63 (100)
계	103 (58.9)	72 (41.1)	175 (100)	144 (75.4)	47 (24.6)	191 (100)
χ^2	2.81			2.51		

<표 12> 어머니의 학력별 과외 형태 (괄호 안은 백분율임)

학력	영어			수학		
	학원	개인/그룹	계	학원	개인/그룹	계
대학원 이상	13 (81.3)	3 (18.8)	16 (100)	17 (89.5)	2 (10.5)	19 (100)
4년제 대학	35 (50.7)	34 (49.3)	69 (100)	55 (64.0)	31 (36.0)	86 (100)
전문대 이하	55 (60.4)	36 (39.6)	91 (100)	71 (82.6)	15 (17.4)	86 (100)
계	103 (58.5)	72 (41.5)	176 (100)	143 (74.9)	48 (25.1)	191 (100)
χ^2	5.27			10.30**		

** p<0.01

한편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련해서는, 영어 교과에 경우는 경제 수준이 '상'인 집단에서 개인/그룹 과외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 교과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라 과외 형태에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과외 형태의 차이는 없었다.

<표 13> 경제 수준별 과외 형태 (괄호 안은 백분율임)

소득 수준	영 어			수 학		
	학원	개인/그룹	계	학원	개인/그룹	계
상	35 (46.7)	40 (53.3)	75 (100)	64 (71.9)	25 (28.1)	89 (100)
중	64 (64.6)	35 (35.4)	99 (100)	81 (81.8)	18 (18.2)	99 (100)
하	16 (66.7)	8 (33.3)	24 (100)	20 (74.1)	7 (25.9)	27 (100)
계	115 (58.1)	83 (41.9)	198 (100)	165 (76.7)	50 (23.3)	215 (100)
χ^2	6.49*			2.70		

* p<0.05

<표 14> 성별 과외 형태 (괄호 안은 백분율임)

소득 수준	영 어			수 학		
	학원	개인/그룹	계	학원	개인/그룹	계
남	57 (57.0)	43 (43.0)	100 (100)	83 (80.6)	20 (19.4)	103 (100)
여	59 (58.4)	42 (41.6)	101 (100)	84 (73.7)	30 (26.3)	114 (100)
계	116 (57.7)	85 (42.3)	201 (100)	167 (77.0)	50 (23.0)	217 (100)
χ^2	.04			1.45		

4) 과외비

과외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과외비는 1학기에 54만 4천원 정도 지출된 것에 비해 여름방학과 2학기에는 69만 5천원, 70만 9천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한편 평균치에 비해 중앙치는 44~50만원으로 변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 학생들의 과외비가 일관되게 상승했다기보다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과외비가 더 극적으로 상승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시기별 월평균 과외비의 최대값 역시 겨울방학과 1학기에 각각 230만원과 2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여름방학과 2학기에는 500만원으로 극적으로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 월평균 과외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가지 주요 교과에 대한 월과외비 지출을 합산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과외를 수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교과 외에 다른 교과에 대한 과외를 더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과외비는 더 상승할 수 있다.

<표 15> 월평균 과외비 (단위, 천원)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평균	553.7	544.1	695.0	709.1
중앙치	450.0	440.0	500.0	450.0
최소값	10	12	10	10
최대값	2300	2000	5000	5000

과외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과외비가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월평균 과외비는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과 입학 후 고등학교 1학기에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여름방학 이후로는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여름방학 이후 약화된 현상은 여름방학 이후 경제 수준이 '상'과 '중'에 속하는 집단에서 과외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급격히 상승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여름방학 이후 일부 학생들의 과외비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여름방학 이후로 월평균 과외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일부 나타나면서 과외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이처럼 고액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비단 경제 수준이 높은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위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6>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른 월평균 과외비 (단위: 천원,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경제 수준	겨울방학 (n=214)	1학기 (n=227)	여름방학 (n=239)	2학기 (n=229)
상	655.0 (380.7)	622.6 (328.2)	753.0 (606.3)	756.6 (701.0)
중	520.4 (306.6)	511.6 (263.5)	675.1 (839.7)	735.4 (911.9)
하	416.6 (215.2)	406.8 (209.8)	440.6 (242.8)	413.6 (231.3)
F	7.19**	7.69**	2.46	2.26

** p<0.01

가정의 경제 수준별로 월평균 과외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수는 여름방학 기간에 상위집단 2명, 중위집단 4명이었으며, 2학기에는 상위집단 3명, 중위집단 6명으로 더 늘어났다.

<표 17> 월평균 과외비가 300 만원 이상인 사례수

경제 수준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상	0	0	2	3
중	0	0	4	6
하	0	0	0	0

이처럼 월평균 과외비 지출이 300만원을 넘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제외할 경우, 각 집단의 과외비 지출은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경제 수준에 따라 상위집단은 월평균 과외비가 62~69만원, 중위집단은 51~52만원, 하위집단은 40~44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극단적인 사례 제외시 월평균 과외비 (단위: 천원,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소득수준	겨울방학 (N=206)	1학기 (N=218)	여름방학 (N=228)	2학기 (N=218)
상	659.3 (384.4)	623.3 (329.6)	687.7 (380.2)	648.6 (382.7)
중	511.4 (297.6)	512.9 (268.4)	516.2 (338.9)	518.9 (394.2)
하	416.5 (215.2)	406.8 (209.8)	440.6 (242.8)	413.6 (231.3)
F	7.81**	7.41**	8.89**	5.29**

** p<0.01

한편, 성별에 따라 월평균 과외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들 모두에서 여름방학 이후 과외비 평균이 급격히 증가하고 표준편차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것은 여름방학 이후 남녀 학생들 모두에서 과외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9> 성별에 따른 월평균 과외비 (단위: 천원,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성별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남	522.2 (301.5)	558.5 (285.3)	719.1 (680.1)	704.9 (718.1)
여	577.8 (358.0)	531.5 (302.8)	673.4 (775.4)	712.6 (831.1)
t	1.23	-.70	-.49	.08

부모의 학력에 따라 월평균 과외비를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과외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일관되게 더 적었다. 그러나 부모

의 학력에 따른 월평균 과외비의 차이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아서, 시기별로 학력에 따른 집단 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표 20> 아버지 학력에 따른 월평균 과외비 (단위: 천원,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아버지 학력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대학원 이상	674.5 (439.3)	620.5 (282.2)	725.3 (626.3)	766.7 (825.5)
4년제 대학	592.9 (337.8)	574.5 (327.6)	764.1 (781.4)	716.8 (696.3)
전문대 이하	475.6 (264.3)	482.9 (262.2)	571.9 (517.3)	619.5 (657.0)
F	4.62*	2.88	1.78	.63

* p<0.05

<표 21> 어머니 학력에 따른 월평균 과외비 (단위: 천원,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어머니 학력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대학원 이상	633.3 (400.7)	558.2 (225.7)	680.5 (411.0)	716.7 (490.2)
4년제 대학	647.2 (392.5)	604.5 (345.3)	829.8 (837.5)	762.3 (757.2)
전문대 이하	485.8 (248.9)	504.6 (263.8)	565.8 (507.1)	628.9 (710.5)
F	5.66**	2.55	3.90*	.82

* p<0.05; ** p<0.01

이상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른 과외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

적 변인들이 월평균 과외비의 전체 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단, 월평균 과외비가 300만원 이상인 극단적 사례들은 이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그 결과,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학력, 학생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월평균 과외비 전체 변량의 약 1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구체적으로 월평균 과외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의 경제 수준으로, 가정의 경제 수준이 하에서 중, 중에서 상으로 1단위 높아질 때마다 월평균 과외비는 91,80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1단위씩[(고졸-전문대졸-대학졸-대학원졸)] 증가할 때 월평균 과외비는 평균적으로 32,200원씩 증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평균적으로 50,200원 더 과외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의 경제 수준이나 부모의 학력 간에는 상호 상관이 존재하여 모형에 독립변인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각 독립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형1에서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월평균 과외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회귀계수)가 11.33으로 나타났으나, 모형2에서 어머니 학력 변인이 추가되면서 그 설명력의 크기는 9.24로 줄어들었다. 또한 모형3에서 아버지 학력 변인이 모형에 추가되었을 때는 어머니 학력의 설명력이 3.64에서 3.15로 줄어들었으며, 아버지 학력의 설명력이 0.78로 낮게 나타난 것도 이 변인이 어머니의 학력($r=.66$) 및 가정 경제 수준($r=.25$)과 높은 상관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 월평균 과외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설명량(R^2)	독립변인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	t
모형1	.063	가정 경제 수준	11.33	.25	3.93**
모형2	.094	가정 경제 수준	9.24	.20	3.15**
		어머니 학력	3.64	.18	2.84**
모형3	.095	가정 경제 수준	9.12	.20	3.09**
		어머니 학력	3.15	.16	1.87
		아버지 학력	0.78	.04	0.46
모형4	.102	가정 경제 수준	9.18	.20	3.11**
		어머니 학력	3.22	.16	1.92
		아버지 학력	0.76	.04	0.44
		성 별	5.02	.08	1.31

** P<0.01

Ⅲ.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A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과외 실태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인 A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과외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 71%의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으며 시기별로는 학기 중보다 방학 기간에 과외 비율이 더 높고, 특히 고등학교 입학 직전의 겨울방학에 과외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별 평균 과외 비율은 수학(68.0%)이 가장 높고, 다음이 영어(61.0%), 국어(47.1%), 과학(41.6%), 사회(7.0%) 순이었다.

학생들의 과외 비율은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일 경우 과외 비율이 약 80% 정도인데 비해,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 이하인 경우는 과외 비율이 60% 수준이었다. 또 가정의 경제 수준이 ‘상’인 경우 과외 비율이 약 86%, ‘중’인 경우 68%, ‘하’인 경우 55%로 경제 수준에 따라 과외 비율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총체적인 과외 수강의 양(量)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과외 수강 과목 수의 경우는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이(약 3.3 과목) 여학생들(약 3.0 과목)보다 평균 수강 과목 수가 더 많고 개인별 편차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 형태는 영어 교과외의 경우 경제 수준이 ‘상’인 집단에서 개인/그룹과외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수학 교과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일 때 개인/그룹과외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과외비는 학년 초에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월평균 과외비에 차이가 있었으나 여름방학 이후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름방학 이후 월평균 과외비가 300만원을 넘는 이례적인 사례들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사례들이 비단 가정의 경제 수준이 ‘상’인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수준이 ‘상’과 ‘중’인 집단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입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과외비가 가정의 경제 수준 내에 머물지 않고 무리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이례적인 경우들을 제외할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과외비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학력에 따른 월평균 과외비의 차는 뚜렷하지 않아서 시기별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가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 이하인 경우보다 더 많은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과외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월평균 과외비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와 전문대 이하인

경우 역시 월평균 과외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 이하이거나 경제 수준이 '하'인 경우 과외 수강 비율이 낮고, 또 과외를 하더라도 지불하는 과외비 수준이 더 낮았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과외를 시키는 한국의 상황에서 경제 수준이 중위 이상인 가정에서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교육을 시키고자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달에 몇 십만원씩 하는 과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계층에서는 근원적으로 자녀에게 원하는 과외를 시키지 못하거나, 과외를 시키더라도 가급적 저렴한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일수록 사교육을 통한 보충적인 교육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진 사교육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과 함께 사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양분·김미숙(2002). 입시학원의 교육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2001). 사교육 실태 및 문제. 사교육 문제의 재조명. 한국교육개발원.
- 김흥주(2000). 과외 문제의 심층 해부와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도 제 2차 교육정책 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상경아·백순근(2005). 고등학생의 과외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개혁포럼 월례세미나 자료집.
- 오영수·윤정식(2003). 일반계 고등학생의 성적결정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2권 1호.
- 윤정일(1997). 초·중등 학생 과외실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종태·김양분·이인호(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해명(2001). 사교육의 교육적 효과. 한국교육포럼 제3차 교육문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근·김양분·유한구·김현진·이희숙(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대동·성병찬·길임주(2001). 고등학생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와 과외효과의 비교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1권 1호.

<Abstract>

Demographic Analysis on Students' Private Tutoring Experience :
A Focus on the Case of High School "A"

Sang, Kyong-Ah* • Baek, Su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students' private tutoring experience based upon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 of their par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irst year students at High School "A" in Seoul(N=350). Each student took the same questionnaire three times in March, June, and October, 2004.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tudents' private tutoring experience based upon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 of their parents. The higher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 of their parents, the more frequently they participated in private tutoring and the more money they spend on private tutoring fee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atio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between girls and boys.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ypes and in the number of subject matters participating in private tutoring by the demographic variables.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